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넥스파우더' 건강보험 급여 지정...日 본격 진출

- 넥스파우더, 지난 2월 PMDA 최종 인허가 획득 후 6개월만에 보험 등재
- 이토추 상사 자회사 CMI의 소화기학 병원 네트워크 통한 판매로 매출 성장 기대

<2025-08-05> 혁신형 치료재 개발 및 수출 기업 넥스트바이오메디컬(389650, 대표이사 이돈행)이 자사의 주력 제품인 파우더 형태의 내시경용 창상 피복재 넥스파우더(Nexpowder™)가 일본에서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넥스파우더는 오는 9월부터 일본에서 정식 판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넥스파우더는 지난 2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획득한 이후 6개월여 만에 보험에 등재되며 본격적인 일본 시장 진출 준비를 모두 마쳤다. 넥스파우더는 일본 이토추 상사의 자회사인 센추리메디컬(Century Medical, Inc., CMI)을 통해 판매된다. CMI는 소화기학 분야에서 탄탄한 병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양사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주력 제품인 넥스파우더는 파우더 형태의 내시경용 창상 피복재다. 내시경을 통해 분사되며 출혈 부위에 점착되는 동시에 겔화돼 물리적으로 상처 부위를 보호하고, 상처 부위를 압박해 지혈 및 재출혈을 예방할 수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미국 FDA, 유럽 CE-MDR 승인까지 모두 획득해, 현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다.

최근 국외 학술지에 넥스파우더 관련 임상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으며, 출혈 예방 목적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의 첫 임상 결과가 공개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국내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도 발표되며 예방적 사용에 대한 근거가 점차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관계자는, “이번 보험 등재를 계기로 미국, 유럽 시장에 이어 일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임상 근거를 확보하여 제품의 신뢰도 제고 및 시장 확대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